



■ 육상

임희남 100m 한국新 세운다

28년만에 10초34 벽 돌파 기대

김덕현 세단뛰기 기록 도전

‘마의 10초 34’, ‘17m 벽을 넘는다’ 육상은 기록 종목이다. 육상에서 신 기록을 세우는 장면을 보는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다.

특히 28년간 철옹성처럼 버텨온 한국 남자육상 100m의 기록을 깨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한국 육상의 희망 임희남(경기)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 88회 전국체전(10월 8~14일) 남자육상 100m에서 28년만에 한국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임희남은 지난 7월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기록에 도전했지만 0.08초가 모자란 10초42를 찍어 아깝게 실패한 한국 단거리 육상의 기대주다.

임희남은 이전 일본남부그랑프리대회 100m 결승에서 10초29에 결승선을 끊어 한국 신기록을 넘기도 했으나, 레이스 순간 뒷바람이 초속 2.1m로 불어 기존 풍속(초속 2m)을 불과 0.1m 초과하는 바람에 기록을 공인받지 못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임희남은 올해 개인 최고기록(10초44)을 0.02초 앞당긴 대다 아시아대회 100m 예선과 준결승, 결승에서 각각 10초46, 10초48, 10초42로 연속 10초4대를 뛰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어 이번 체전에서 한국 신기록의 벽을 넘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한국 육상의 또 다른 기대주 김덕현(22·광주)의 세단뛰기 기록 도전도 볼거리다. 김덕현은 지난해 10월 김전 전국체전 육상 남자



임희남

김덕현

를 차지, 세계 톱10 진입에도 성공했다.

김덕현 외에도 20km 경보 한국남자 신기록(1시간20분20초) 보유자인 박철성도 눈길을 끈다.

영양출신인 박철성(전남)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아름다운 팔찌’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04년 8월 아테네올림픽에서 박철성은 1시간32분대로 골인해 완주자 41명 중 41위를 했다.

그러던 박철성이 3년만인 올해 완전히 새 선수로 탈바꿈했다. 지난 5월 중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기록을 작성했고, 6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경보 월드컵에서 처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유니버시아드 은메달까지 거침이 없었다.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에선 세계 정상급 ‘워커’들과 겨뤄 15번째로 골인하는 기염도 토해냈다.

박철성의 다음 목표는 이번 광주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 메달권 진입이다.

이외에도 이번 오사카 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한 박주영(전남), 김영춘(서울), 이명승(경기) 등이 다루는 마라톤 레이스의 기록경쟁도 기대해 볼 만하다.

또 박태경(광주·110m허들)과 이윤철(울산), 강나루(전북·이성 해머던지기), 박재명(강원·창던지기), 이연경(울산·여자 100m 허들) 등 아시아 육상에선 수준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육상 스타들의 기록 단축 경쟁을 감상할 수 있고, 경보는 12일 단 하루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에서 열린다.

마라톤은 체전 마지막 날인 14일 광주시가지 일원(폴코스)과 광주월드컵경기장(단축/하프) 주변을 달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세계 남녀 프로골프 랭킹



↓ 최경주 10위
2계단 하락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세계랭킹 10위로 두 계단 내려섰다.

17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21위에 그친 최경주는 18일 발표된 주간 세계랭킹에서 지난 주 8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이 대회에서 4위에 오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11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고 공동 9위를 차지한 로리 사바티니(남아공)도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1위 타이거 우즈(미국)부터 7위 파드리그 해링



↑ 신지애 7위
2계단 상승

턴(아일랜드)까지의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여자 세계랭킹에서는 16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19·하이마트)가 7위로 두 계단 올라섰다.

신지애는 폴라 크리머, 모건 프래셀 등 미국의 ‘영건’들을 한 계단씩 밀어내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박세리(30·CJ)가 6위로 한국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그대로 지켰고 김미현(30·KTF)이 11위, 장정(27·기업은행)이 12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로드리게스 ‘고향 앞으로’

어깨 부상에 부진...사실상 방출

어깨부상중인 KIA 외국인 투수 펠릭스 로드리게스(35)가 잔여시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방출이다.

KIA는 18일 ‘로드리게스가 이날 오후 7시 30분 대 한항공(KE085)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달 25일 오른쪽 어깨 이상을 호소, 정밀 검진 결과 어깨 회전근개염증을 진단 받았다. 이후 꾸준히 치료를 해 왔으나 본인이 잔여 연봉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정밀검진을 받기를 위해 출국하게 됐다.

로드리게스는 시즌 도중 KIA 유니폼을 입고 6월1일 사직 롯데전에 첫 출전했다. 메이저리그 특급 미들 맨 출신으로 활약을 기대받았지만, 1패 1세이브 10홀드 방어율 3.13을 기록하는 등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창수·나상욱 PGA ‘가을 시리즈’ 나간다

내일 터닝스톤리조트챔피언십 참가

PGA투어는 20일 오후 뉴욕주 버로나의 에트너트 골프장(파72·7천315야드)에서 개막될 터닝스톤리조트 챔피언십부터 7개 대회를 치르는 ‘가을 시리즈’를 시작한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일방적인 독주 끝에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는 막을 내렸지만 PGA 투어는 시즌을 마감한 것이 아니다.

‘가을 시리즈’는 플레이오프에서 소외된 중, 하위 랭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이 예상된다.

‘가을 시리즈’ 대회 우승자도 엄연한 PGA 투어 대회 챔피언으로서 받는 돈과 명예를 다 챙긴다. 투어 카드를 2년 동안 확보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출전했던 상위 30명이 ‘가을 시리즈’에는 거의 나서지 않을 공산이 커 우승 가능성은 더 높다. 더 중요한 것은 7개 대회 종료 시점에서 상금랭킹 125위 밖으로 밀려나면 퀘리파이낸스를 다시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상금랭킹 120~130위 사이의 선수들에게 ‘가을 시리즈’가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바클레이스 출전자 명단 144명과 두번째 대회 도이제뱅크챔피언십 출전자 120명에는 들어 있지만 70명으로 줄어든 세번째 대회 BMW챔피언십에는 나가지 못했다.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와 나상욱(23·코브라골프)도 ‘가을 시리즈’에서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다.

두 선수 모두 준우승까지 이뤄낸 적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가을 시리즈’에서 정상 제패가 결코 꿈은 아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병현 시즌 10승 실패

애들랜타전 4이닝 9실점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또 시즌 10승 달성에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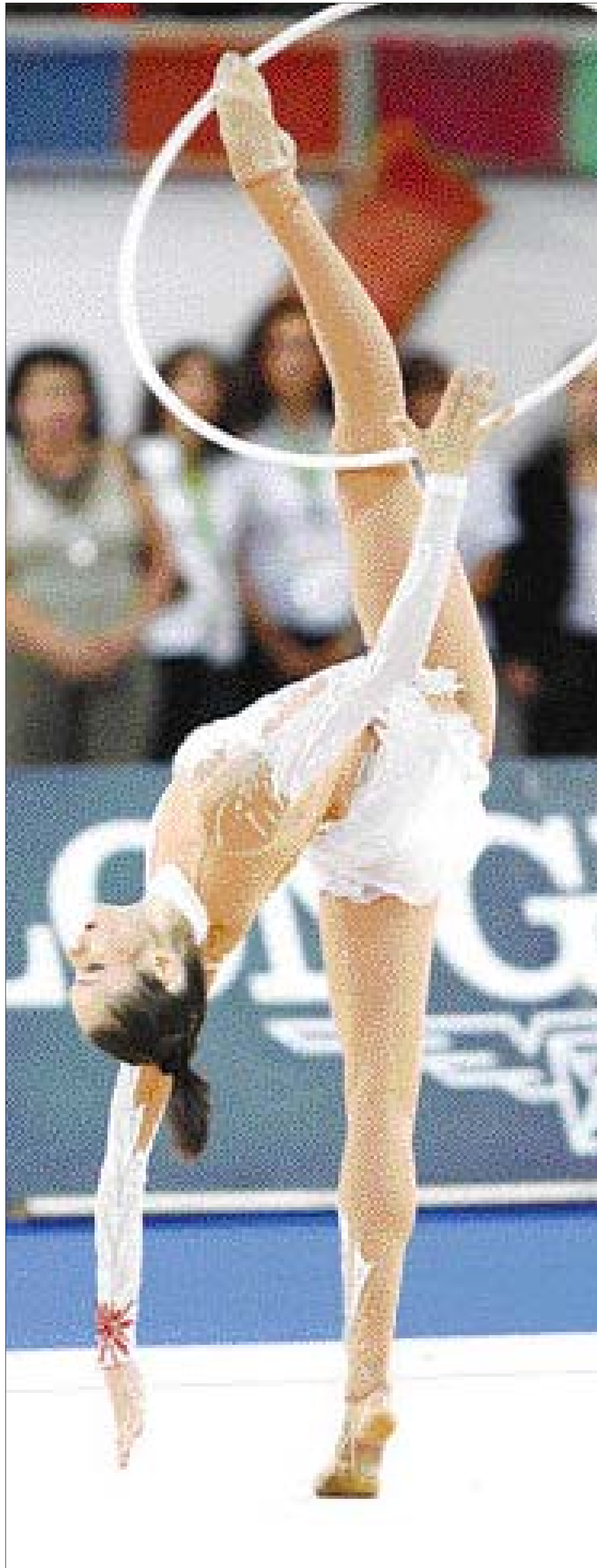
김병현은 18일 애들랜타 터너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애들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했지만 4이닝 동안 안타 9개와 4사구 4개로 9실점했고 팀이 6-11로 지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9승7패를 기록한 김병현은 두번째 10승 도전도 무위로 돌아가 1999년 비리그 데뷔 후 첫 두자릿수 승수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6.06(중전 5.52)으로 치솟았다. 이날 잃은 9점은 지난 해 6월15일 워싱턴전에서 남긴 8실점(5자책점)을 넘어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실점이다.

하지만 삼진 3개를 빼앗아 올 시즌 100개를 채우면서 3년 연속 100탈삼진에 도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환상의 후프 연기

우크라이나의 인나 베소노바가 18일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열린 2007년 세계 리듬체조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 멋진 후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본즈 756호 홈런볼 ‘운명’ 인터넷 투표로 결정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통산 홈런 기록을 수립한 역사적인 756호 홈런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본즈의 홈런공을 75만여 달러에 경매로 구입한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마크 예코는 18일(한국시간) 홈런공을 ‘명예의 전당에 기증할지, 참고 표시를 의미하는 별표 낙인을 찍어 명예의 전당에 보낼지, 로켓에 실어 우주로 날려버릴지’에 대해 26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받아 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홈런공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논쟁을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공을 샀다”고 말했다.

예코는 자신이 몰래 대통령 전용기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을 유포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약물에 침입은 기록이라는 뜻에서 별표 낙인을 찍는 데 한표 던졌다는 예코는 “내 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 대중이 홈런공을 어떻게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